

창생공간 오픈

2016

창생
MAKING SPACE



수원시 권선구



OPEN SPACE

CHANGSEANG

**창생공간(maker space)은,
만들기를 실천하는 시민과 작업자를 위한
열린 제작공간이다. 이곳은 생활기술을
매개로 생산과 연구, 기록, 네트워크,
자립에 대해서 고민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인적 네트워크망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은 삶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내고 지역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의 확장과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생활권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교, 교류의 공동체 활동을 넘어서 지역 멤버십을 토대로
한 자립, 자생이 가능한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단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작기술 기반의 공동작업과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문화공방은 전통적인 DIY를 넘어서 문화적 생산기술을
공유, 지역의제를 해결하며 제작문화를 확산하거나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하는 장인으로 또는
독립적인 생산자 커뮤니티를 시도한다. 이렇게 지역 곳곳의
개인이 생산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창생 라이브러리에 축적, 문화적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될 것이다.

SPACE

2016 창생공간 기획

MAKING SPACE

**창생공간은 국내외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maker movement)
에서 착안, 경기도 지역여건에 맞게
대안적인 공간 조성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메이커 무브먼트는 다양한 재료 - 기술 - 도구를 활용해 만들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1인 제조자가 시제품을
출시하며 일자리와 제조업의 성장 토대로 삼고 있다. 지역 삶터
안으로 파고든 창생공간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의 문화적 근간으로
자리할 ‘제작문화’가 새로운 문화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2016년 창생공간은,
경기도내 구도심과 농촌지역 6곳에 문을 열었다.

6개 공간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조기술

—발효 —리사이클링 —망원경(천체관측)
—재봉 —적정기술(난로) —지역아카이브(책방)

을 기반으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6개의 공간 운영자는 대상 공간을 발견하고 리서치,
공간조성을 거쳐 앞으로 공적 운영원칙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더 많은 사적 영역의 개인이 공공영역으로 등장, 공공영역의
주체자로 형성, 스스로 공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변화의 과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Curating of MAKING SPACE

CHANGSEANG

소셜 프로젝트 디자인

이모저모 도모소

MAKING SPACE

〈이모저모 도모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환경이 반영된 하나의 사물(일, 물건 事物)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며 〈이모저모 도모소〉가 위치한 지역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치중심의 소셜 아트 및 소셜 프로젝트 디자인 Social Product Design 활동을 도모하는 아티스트 그룹이다.

소셜 아트 그룹 〈이모저모 도모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의 대학가(성결대학교) 상권 중심지와 구도심 거주 지역을 거점으로 첫째, 다수의 시니어(65세 이상) 인구 및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접촉을 시도하고(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소셜 프로젝트 디자인 Social Product Design 개발, 준비하는 죽음-웰다잉 Well dying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경제활동을 위한 수제작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실행 등) 둘째, 대학가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 문화적 교류 도모하며 셋째, 지역주민과 창작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실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공간기능
공동 제작소(Co-Making Studio)
지역이슈 연구소(Social LAB)
운영주체 스튜디오(Artist Studio)
소규모 전시장(Show Case)

- 제작분야
소셜 아트& 프로젝트 디자인
(핸드 메이킹 염색, 자수, 니팅, 재봉, 펠트 리사이클 등)

- 주요활동
- 소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제작 워크숍
- 소셜 프로젝트 제작(제품, 그래픽, 핸드메이킹 등)
- 수익형 시범 사업 운영(공간 셰어, 아트 상품 온라인 유통 등)



이모저모도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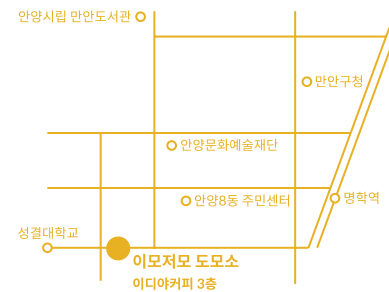
—대표 이미지

‘예술로 이웃 만들기’를 실천해온 이웃상회(시각예술, 디자인, 핸드메이크 커뮤니케이션)와 한선경(시각예술), 천대광(시각예술), 이주영(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총 4인의 창작자가 모여 안양을 거점으로 지역사회(거주민, 장소, 환경, 상황)와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실험하고자 구성된 창작그룹이다.

SEWING



● 찾아오는 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60-11 (3층)

<http://domoso.cafe24.com>

문의

010-3088-0251

heute25@hanmail.net



발효

생활적정랩 빼꼼 be;come

MAKING SPACE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우연히 자리했던 서둔동과 긴 인연을 이어갈 공간을 ‘생활적정랩 빼꼼’으로 다시 열게 되었다. 거창하지 않은, 본래 누구나 살며 익혀왔을 일들을 통해 좀 더 살가운 삶의 언어로서 예술을 대하려고 한다. 상탑로 한 칸에 있다는 게 누군가의 이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리함과 이성적 합리성을 추구해왔던 이면에 잃어버리고 소외시켰던 시간과 노동의 감각과 감수성을 읽어내는 인문적 태도를 지향하고 싶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이 이 동네와 이곳에서 살고 일하거나 경유하는 이들에게 공유되고 기억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기록도 ‘빼꼼’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점에서 유통이 지난 잉여물을 발효, 커뮤니티 키친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발효제조기술을 지닌 지역 장인을 발굴하거나 작은 가게와 연계하여 발효 가공, 어느날 가게와 같은 마켓을 열고자 한다.

- 공간기능
발효키친
리서치, 아카이브
잡화점 ‘어느날 가게’
- 제작분야
발효키친
- 주요활동
발효관련 제조/제작(누룩, 발효증, 술, 식품, 발효조미료 등)
개별적 발효활동을 하는 사람들
인터뷰 등 리서치&아카이브
제조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활동



FERMENTATION

커뮤니티스튜디오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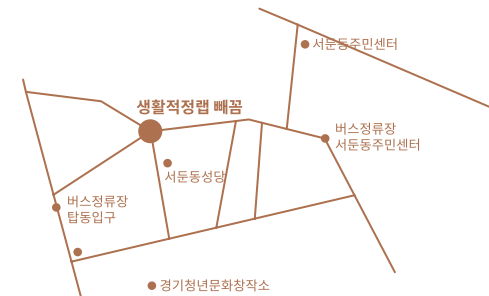
— 공동대표 임재춘

2015년 7월 서수원 문화자원 연구프로젝트 〈웨스턴 스토리〉를 계기로 모여 본 단체의 거점공간을 서둔동 104에 두고 있다. 과업으로서 공간의 용도는 종료되었지만 열악한 문화 여건 상 동네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목표 지향적이 않은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작업자들을 매개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네연구, 문화적 사건 만들기, 비슷한 관심 가진 주민, 예술가, 기획자 초대하기를 주요 관심활동으로 하고 있다. 임재춘, 한문희, 조현대, 이유림, 백소민, 김선우 등 젊은 기획자가 함께 한다.



● 찾아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04 (서둔동 200-45번지)
becomminglab.weebly.com
문의 010-5008-2357
findspring@naver.com



목공, 도예, 금속조형, 리사이클링

재미

MAKING SPACE

〈재미〉는 성남 신흥3동, 노후한 다세대 주택밀집지역 내에 있는 40년 된 옛 핫도그 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다. 수년간 공실로 방치된 건물을 그림마음이 벽화작업을 통해 발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제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창의공작소 〈재머〉는 그동안 벽화작업과 인테리어 시공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자 그림마음이 직접 디자인, 공사 시공을 맡아 리모델링 전 과정을 진행한다.

새롭게 오픈할 〈재미〉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시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 갤러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목공, 도예, 금속공예 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층에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제작된 상품은 월 1회 마을마켓을 통해 교류하고 카페와 공유 공간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 공간기능
1층
갤러리·작업장·목공기계실·도예실
2층
카페·마을·영화관
- 공간기능
목공·도예·리사이클링
- 주요활동
수리수리마수리 (리사이클링 및 리폼)
재미난마켓 (오픈마켓)
생활기술 교육·JM갤러리 운영
목공예 및 도예: 생활소품 제품 주문제작
목공과 금속을 결합한 아트간판 제작,
가구 소품 등

RE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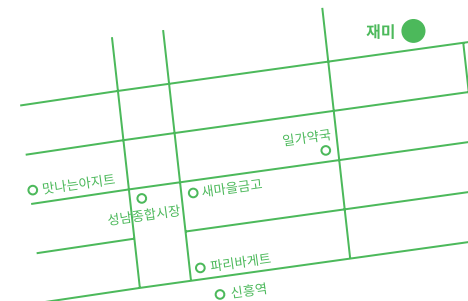
재미

— 그림마을 대표 이현식

1990년 경원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성남지역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이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던 중 15년간 마을벽화그리기, 지역공동체 벽화행사에 주된 일로 참여한 그룹이다. 10여명의 작가로 구성된 단체는 놀이터벽화·벽화공사·설치미술·목공·리사이클링·도예·가구디자인·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15번지
재미.com
010-5808-5250
haaa1205@naver.com



공생도구 창작공간

공도창공 수동

MAKING SPACE

〈공도창공 수동〉의 ‘공도창공’은 공생도구창작공간의 줄임말이며, ‘수동’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자 자동화 시스템에 대립하는 핸드메이드 혹은 자작(自作)의 개념을 포괄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적정기술 및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에너지·경제자립형 공간운영은 〈공도창공 수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서 그 실천과제는 크게 공공성의 실현과 자립적 생존기반의 확보로 대별된다.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는 지역사회 안팎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술교육, 적정기술 공생도구의 기술지원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들 수 있으며, 자립적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과제는 청정연소 열교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토브의 개발과 문화예술기획 사업에 의한 수익창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아이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공도창공 수동〉은 향후 자본과 자원, 환경 및 생태, 축적된 지식과 경험(기술) 등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공간운영을 모색할 것이며, 자생과 공생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공간기능
 - 자립아이템 개발·연구·제작·전시
 - 에너지자급자족 공생도구키트를 활용한 각종 스토브제품 등 완성된 제작물의 상설전시
 - 제작문화 확산
 - 제작분야
 - 우드가스스토브·우드펠렛 스토브
 - 로켓스토브·매스히터 등 난방 및 조리기구의 디자인·설계·제작
 - 주요활동
 -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품화 추진
 - 제작워크숍
 포켓로켓스토브, 가마솥화덕 제작실습 및 연소시험
 적정기술 스토브제작, 보급행사
 (조리용 화덕 및 난로 각 1회)
- 제2회 ‘적정기술 난로페스티벌 수동’
 인접공간 활용(자작나무공방)
 생활밀착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용(회원제)



ROCKETSTOVE

공도창공 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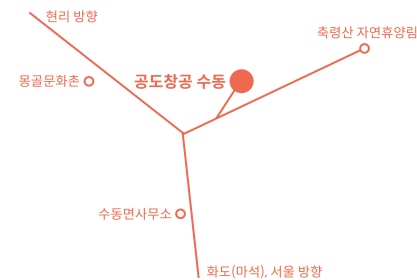
—대표 정길수

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의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며 줄곧 적정기술과 지속가능발전 관련이제를 실천과제로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로켓스토브·로켓매스히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적정기술과 공생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험해 왔다.

2010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2010APAP) ‘오동팀’의 폐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로켓스토브 조리용 화덕, 로켓매스히터 구들, 생태화장실, 옥상빗물연못정원, 자연농법텃밭 등 생태순환적 삶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적정기술 공생도구를 선보였다.



● 찾아오시는 길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37번길 40-1
<http://cafe.naver.com.convivialmake>
 010-9018-2926
wieammain@hanmail.net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한 <천문공작실>은 천체 관련 제작교육 및 체험교육, 교육용 제작키트를 개발하는 단체로서, 천체망원경의 제작 이론교육, 도면, 디자인, 가공 조립 등을 직접 할 수 있고, 천체 관측 및 천체촬영을 할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자체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제작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삼봉리 구봉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있으며 1층 휴식 및 부대 공간, 2층 제작 및 체험,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된 다양한 원리의 망원경은 항상 보아왔던 망원경이 아닌 새롭고 독특한 응용제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론, 제작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천체망원경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제작공간으로 교육용 제작키트 및 전문적인 천체망원경의 필수 부품들을 구비해 방문객들은 언제든지 직접 제작 할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목공방과 Farm770 주말 체험농장은 삼봉리 마을이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다양한 체험을 연계 할 수 있다.

● 공간기능

시민천체관측·제작워크숍

— 굴절망원경, 뉴토니안 반사망원경, 돛소니안 망원경, 쌍안망원경 조립·제작·관측

목재가공 및 금속가공 설계, 제작 운영시간

— 체험제작 10시-18시

자율관측 20시, 새벽 3시 (매주 월 휴무)

● 제작분야

천체망원경 제작

● 주요활동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품화 추진

제작워크숍

— 포켓로켓스토브, 가마솥화덕 제작실습 및 연소시연, 적정기술 스토브제작, 보급행사(조리용 화덕 및 난로 각 1회)

제2회 '적정기술 난로페스티벌 수동'

인접공간 활용(자작나무공방)

생활밀착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용

(회원제)



천문공작실

—대표 이동휘

2013년 천체망원경 DIY 체험 및 관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조성 목적으로 삼봉리 소재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천문인 커뮤니티 카페 설립한 이후 마을 공익사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구봉 마을 회관으로 이전하여 천문공작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관찰·체험학습의 장 조성, 지역 학교 방과후 교실 활성화, 남양주 조안면의 천문관측 체험마을 등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공공 수익 창출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770번길 9(구봉마을회관)

cafe.naver.com/woiow

문의 : 010-3773-6110

ipanema70@naver.com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지역문화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지역출판의 제작기반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래된 지역의 한 공간에 책방을 열었다.

출판학교 <북스튜디오 사이다>를 운영하여 출판 전반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실습과 제작, 출판전시회까지 진행해보고 출판 인재 양성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료와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한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책방에 한데 모아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책 판매도 진행한다.

운영자 소개

골목잡지 더페이퍼

—대표 최서영

수원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2012년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를 창간한 발행인. 지역의 숨어있는 이야기 발굴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현재까지 총 13권의 잡지를 발간했다. 역사와 문화, 환경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공간기능
출판 교육과 실습 진행
지역아카이브 서점 운영 및 판매

● 분야
출판기획, 지역아카이브



BOOK&PRESS

facebook.com/bookstudiosaida

thesaoda@hanmail.net

문의 : 031-225-8199

문화재생 쇼케이스 『수작手作, 먹고사는 기예술』展은 경기도 및 주변도시에서 제작기술 기반의 작업을 해 온 문화주체들과 현장을 조망하고 경기도형 문화재생의 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창생공간의 진행과정을 아카이브 전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자립과 자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기획한 작업자들의 아트에디션, 아트프로덕트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즐겨 찾는 소박한 작업공간이 있을까요?

2017년 창생공간을 공모합니다.

접수는 4.19(수)부터 4.21(금)까지 자세한 안내는

ggcf.kr에서 <창생공간 공모>를 찾으세요.

뒤 늦게 정보를 보셨더라도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cjyart@gmail.com



NEED

MAKER

SPACE

CHANGSEANG

우편번호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www.ggcf.kr

031-231-8022